



한·일 양국의 수출입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양국 산업내 무역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어떠한 농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 있고 그 시장은 어느 국가이며 관세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농산물의 교역구조

한국의 농산물 교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규모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84억 달러에 달하였다. 외환위기 기간에는 농산물 수입이 급감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 제외) 수출은 지난 10년간 (1993~2003) 2배정도 증가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 부진 등으로 축산물 수출은 감소하였

다. 임산물 수출은 석재류 등의 수출이 감소하여 4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과일, 채소, 화훼 등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기호식품 등이다. 화훼류의 수출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증가율은 어떤 품목보다 높다. 채소류 수출은 김치와 과채류 수출의 증가로 지난 10년간 2.3배 증가하였다. 과실류의 주요 수출 품목은 사과, 배, 감귤이며, 채소류는 오이, 토마토, 양파, 가지, 당근, 김치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화훼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장

미, 백합, 선인장, 난 등이다. 가공식품과 기호식품도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이다. 과자류, 면류, 주류 등은 연간 1억 5천만 달러 정도씩 수출되고 있다. 축산물은 1999년 4억 달러 이상이 수출되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출 감소로 2003년에는 1억 달러 수출에 그쳤다.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돼지고기, 김치와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이며, 가공식품도 중요한 수출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 주로 소량다품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력 품목이 없어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과실류는 화훼류는 신시장 개척의 한계로 최근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 시장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대만 등으로 이들 5개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농산물 수출의 최대 시장이나 전체 수출에서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수출품과 수출시장에 있어서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일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56%에서 2002년 33%로 크게 감소하였다(대일본 돼지고기 수출

중단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돼지고기 문제를 제외 하도고 대일본 수출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

반면 중국, 미국, 러시아, 동남아를 비롯한 기타국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입을 품목군별로 보면, 농산물의 비중이 60%이고 축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20% 수준이다. 임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7%에서 2003년 20%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시장개방 확대로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축산물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0%에서 2003년 20%로 증가하였다. 곡물 수입은 사료곡물 수입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곡물 수입 규모는 외화위기 직전 40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3년에는 27억 달러에 그쳤다. 열대와 실을 중심으로 과실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채소류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에 비해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은 상위 5개국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지만 수입은 상위 5개국의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국 수출액이 큰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임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상위 5위국에서는 벗어났으나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담배의 수출국인 일본, 사탕수수당과 커피의 수출국인 태국, 대두 및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을 수출하는 브라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수입하는 농산물의 최대 공급국은 미국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의 1/4정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땅콩, 참깨, 팥, 대두박, 한약재 등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는 목재 등 건축용 자재와 팜유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쇠고기, 목재, 사탕수수당 등이다.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1993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02년 2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옥수수 수입이 변동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안정적이나 미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상호역의 관계로 한국 시장 점유율은 안정적이나 미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상호 역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료곡물 수입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옥수수 수입선을 어느 국가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세계 최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35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은 1990~2001 기간에 30%에서 28%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사료곡물인 옥수수와 밀의 자급률은 매우 낮다.

곡물 가운데 쌀은 과잉생산으로 생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타 곡

물은 대부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육류의 자급률은 70%에서 53%로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쇠고기 자급률은 3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채소의 자급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실의 자급률은 44%에 불과하다.

곡물 수입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농산물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육류 수입은 1990~2001 기간에 85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은 20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70% 증가하여 쇠고기 수입 증가율 28%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쇠고기 보다 높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채소와 과실류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소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은 호박, 고추, 양파 등으로 한국의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다. 과실류는 주로 일본의 국내 생산이 부족한 열대과일과 키위가 수입되고 있다. 한국이 관심을 가지는 사과, 배, 밀감, 포도 등의 수입 규모는 매우 작다.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수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2001년 농산물 수출 규모는 25억 달러이나, 이 가운데 상업적 수

출이 아닌 원조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 수출이 1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의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의 증가와 수출 부진으로 일본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3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에 있어서 일본이 최대수출시장이나 한국이 일본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 수입선은 미국으로 2001년 미국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26.9%이다. 미국 다음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 EU, 캐나다, 호주 등으로 곡물과 축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다.

일본 시장에서 이들 5개 주요 수출국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아시아 지역의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임산물, 열대과실, 채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에 있어서 일본이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한국이 일본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은 돼지고기와 임산물의 수출 감소로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대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은 1993년 7억 달러에서 1999년 9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2002년에는 5억 9천만 달러가 되었다.

돼지고기 수출은 1999년에 비해 3억 5천만 달러 감소하였으며 임산물 수출은 6천만 달러 감소하였다. 그러나 임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 수출은 1993년 2억 2천만 달러에서 2002년 4억 6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일본 농산물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99년 8억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2년에는 4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볼 때 대일 수출이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채소류(1억 4천만 달러)와 주류(1억 달러) 등이다. 그밖에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화훼류, 인삼, 과자, 면류 등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은 과실, 채소, 화훼, 장류를 포함한 스스, 과자, 면류 등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이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이 많다.

반면 한약재와 인삼의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입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수출	농산물	695	1,087	1,188	1,003	1,252	1,389
	축산물	115	156	320	408	118	105
	임산물	454	505	345	304	210	179
	계	1,263	1,747	1,853	1,715	1,580	1,673
수입	농산물	3,870	5,675	6,285	4,681	5,325	5,536
	축산물	701	1,224	1,324	1,245	1,466	1,925
	임산물	2,698	2,778	2,622	1,533	1,671	1,957
	계	7,269	9,677	10,231	7,459	8,463	9,418
무역수지	농산물	-3,175	-4,588	-5,097	-3,678	-4,073	-4,147
	축산물	-586	-1,069	-1,004	-837	-1,348	-1,820
	임산물	-2,244	-2,274	-2,277	-1,229	-1,461	-1,778
	계	-6,006	-7,930	-8,378	-5,744	-6,883	-7,745

규모는 2002년 2억 300만 달러이다. 이는 2002년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이 2%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입 가운데 농산물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이 수입되는 품목은 간장 등 소스(1,100만 달러), 연초(4,800만 달러), 채소(1,300만 달러), 사료(1,8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담배는 1억 달러 이상이 수입된 경우도 있으나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채소류 가운데 주로 수입되는 것은 채소종자로 한국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한 후 채소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향미용조제품 등이 있다.

농산물 관세

관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FTA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인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 평균 실행관세는 한국이 58%, 일본이 22%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가 일본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이 경우 대한민국 농산물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관세율 때문이 아니고 0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의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수입	곡물	4,575	4,681	6,339	6,558	4,766	4,400	4,378
	과실	2,216	2,693	2,978	3,101	2,672	3,154	2,895
	채소	1,520	1,935	2,831	3,051	2,959	3,171	3,115
	축산	8,528	9,585	10,869	12,793	9,345	11,202	10,900
	수출	1,116	1,389	1,601	1,564	1,557	1,564	2,485
무역수지	곡물	107	119	136	148	277	177	1,095
	과실	48	63	49	48	38	41	35
	채소	80	65	64	57	40	40	39
	축산	189	176	208	125	127	90	115
	계	-27,825	-30,488	-36,720	-41,073	-33,828	-35,287	-32,890

고 하여도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수입 증가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품목은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은 주곡 가공식품으로 코코아 조제품, 기타 가공식품, 곡물조제품, 설탕과자 등이다.

일본에 있어서 관세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품목은 낙농품, 채소, 유지작물, 전분,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곡물조제품, 기타조제식품 등으로 가공식품이 많다. 그밖에 육류, 육류조제품, 곡물, 과실조제품, 채소조제품 등의 관세율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 채소, 곡물, 전분, 인삼, 유지작물 등에 대하여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그밖에 낙농품, 과실, 향신료 등에 대하여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관세율이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품목은 곡물, 전분, 인삼, 채소, 과실 등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선 농산물이다.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는 한국의 경우 신선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보다 높으나 가공식품은 일본이 오히려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 사이에 한국은 역관세가, 일본은 누진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